



'Wine & Spirits 100점, TOP 100'

에로리카 싱글 베리 셀렉트 리슬링

Eroica Single Berry Select Riesling

지역	미국 > 워싱턴주 > 콜롬비아 밸리		
포도품종	리슬링 100%		
알코올	7.5%	용량	375ml
시음 적정 온도	8-10°C		
테이스팅 노트	풍부하고 집중도 높으면서도 진한 팔레트, 그러나 과하지 않은 우아한 스타일로 오렌지 꽃, 꿀 등 달콤한 아로마가 강력하게 다가온다. 잘 익은 파인애플, 꿀로 시작하여 길로 완벽한 여운으로 마무리된다.		
페어링 TIP	디저트, 과일		



제품설명



20년 간 합작해온 샤토 생미셀 와인메이커 Bob Bertheau와 모젤 와인 메이커 Ernst Loosen의 특별한 프리미엄 와인이다. 전통적인 독일 트로켄베렌아우수레제 스타일로 양조되었으며, 북미에서 찾아보기 힘든 TBA 와인으로 뛰어난 복합미와 구조감이 매력적이다.

수상내역



2016빈티지 와인 앤 스피릿 Wine & Spirits 95점
 2012빈티지 와인 엔수지애스트 Wine Enthusiast 92점
 2012빈티지 와인 스펙테이터 Wine Spectator 91점

와이너리



1934년에 설립된 샤토 생미셀은 미국 와인의 기준을 세운 최초의 워싱턴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이다. 1967년부터 유럽 전통 포도 품종으로 다채로운 스타일의 워싱턴 와인을 선보였으며, 현재 워싱턴 지역의 AVA 등급 체계의 기반이 된 혁신적인 와이너리로 유명하다. 샤토 생미셀은 콜롬비아 밸리 AVA 지역 내 총 1,416ha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워싱턴 주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콜드 크릭 빈야드를 포함하고 있어 와인에서 노련미와 숙성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유럽 와인 명가들의 합작을 통해 (콜 솔라레-이탈리아 안티노리, 에로리카-독일 닥터 루젠, 테네트-프랑스 가시에르) 워싱턴 주 와인 생산지의 위상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신대륙 와인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였다. 샤토 생미셀은 총 다섯 가지의 레인지를 통해 콜롬비아 밸리가 가진 다양한 매력의 와인들을 선보이고 있다. 신대륙과 구대륙의 조화를 담아낸 '콜롬비아 밸리'. 풍부한 과실미가 두드러지는 '인디언 웰스'. 콜롬비아 밸리만의 고유한 페루아 특성을 여실히 나타낸 콜드 크릭과 카누 리지의 '싱글 빈야드' 레인지. 워싱턴이 추구하는 구대륙 스타일의 베스트 빈티지 와인인 '에토스'. 마지막으로 보르도 스타일의 블렌딩 와인 '메리티지 시리즈'로 완성되는 샤토 생미셀의 포트폴리오는 미국의 "베스트 벨류(Best Value)" 와인으로 유명하다. 샤토 생미셀은 단조로웠던 캘리포니아 위주의 미국 와인에서 벗어나 미국 와인 산업에 새로운 척도를 마련한 워싱턴 1위 와이너리이다.

-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